

KCCI 브리프\_ESG\_제40호

# KCCI ESG NEWSLETTER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AUG. 2024

### 전문가 기고

KSSB기준 이중중요성  
접근이 필요하다

### ESG 주요 현안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 전문가 기고

# KSSB기준 이중중요성 접근이 필요하다

### 장지인

중앙대 명예교수  
CDP한국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에 어떤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중요성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어떤 정보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중요성(materiality)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인 재무보고에서 중요성은 '공시대상 정보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 때문에 개념이 재무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 영향중요성(impact materiality),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재무중요성은 환경(자연)과 사회(인간)요인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위험(risk)과 기회(opportunity)이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이다. TCFD권고안과 ISSB기준(IFRS S1, S2)은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영향중요성은 기업이 환경(자연)과 사회(인간)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impact)에 관한 정보이며, 투자자들 이외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이다. 2000년 이전 GRI기준이 이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중중요성은 재무중요성과 영향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으로,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과 GRI기준이 채택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발전과정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영향중요성에 기반한 GRI기준이 가장 널리 적용되어 왔다. 이 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시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활동이 환경(자연)과 사회(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압박하거나 유인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시내용이 재무보고서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2004년 UN Global Compact의 회의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투자자의사결정에 ESG정보의 활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6년 유엔이 발표한 책임투자원칙(UN PRI)은 자본/금융시장과 ESG정보의 연계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ESG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생겨난 것이 재무중요성 기반 기준이며, SASB기준과 TCFD권고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1년 ISSB창립과 함께 그동안 분산되어 발전되어온 기준들이 두 갈래로 정리되었다. 하나는 SASB와 TCFD기준이 초석이 되어 재무중요성 기반의 국제표준인 ISSB기준이 출범하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GRI기준이 초석이 되어 이중중요성 기반의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이 탄생하게 되었다.

영향중요성과 재무중요성은 상호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중요성은 재무중요성으로 서서히 변하는 동적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유발하고(영향중요성),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 형태로 기업의 수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재무중요성). 결과적으로 재무중요성 정보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영향중요성 정보의 rebound effect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총합적 관점(holistic view)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중요성과 영향중요성의 양면을 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이중중요성 기반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다.

# KSSB기준 이중중요성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표준으로 탄생한 ISSB기준은 재무중요성 기반 기준이다. 그럼 왜 ISSB는 재무중요성 기반 기준을 채택했을까? 외부효과가 핵심인 영향중요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재무보고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IFRS재단의 설립목적 및 미션 변경이 필요했다. 또한, ISSB기준은 글로벌 표준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수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EU내 종속기업을 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자체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U ESRS)의 이중중요성 규제에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글로벌 평가기관들도 이중중요성 정보를 활용하며, 투자자들도 이중중요성 정보를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우리도 ISSB 기준에 머물지말고 이중중요성 접근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이중중대성



## ESG 주요 현안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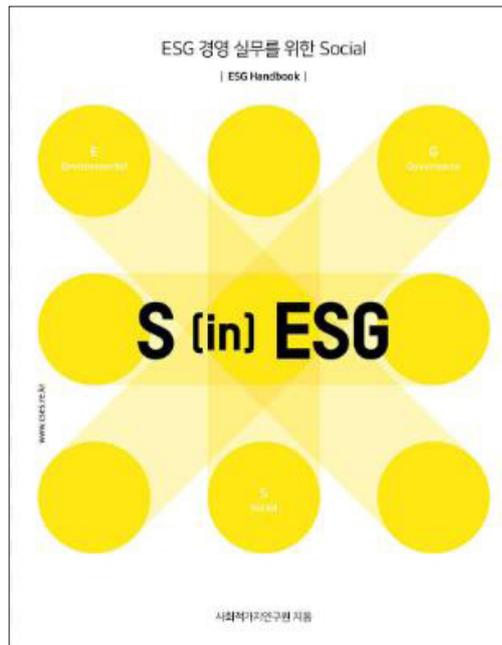
“ ESG가 기업경영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3가지 영역에서 이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



## 중소기업이 처한 ESG준비 상황

ESG가 기업경영의 최대 이슈가 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영역에서 이를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에 국한된 일로서 많은 기업들이 1~3년 정도의 기간 동안 ESG의 현안과 맞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자발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주요 대기업 고객사들의 요구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ESG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처지로 인력, 비용, 전문지식의 한계로 매우 어려워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S)에 대한 ESG 대응은 정책문서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고, 환경(E)에 대한 대응 또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많고,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학습이 많이 되어 있기에 ESG의 본격 준비단계에 들어가면 쉽게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권노동 또는 사회적책임(S)에 대한 대응은 어려운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2023년 EU공급망실사법이 통과 및 발효되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ESG의 철저하고 능동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사회적책임 분야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장의 ESG 담당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업무에 더하여 ESG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일에 대한 만족보다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중견기업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으로 3~5개의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ESG 평가를 동일한 기간에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침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발행한 [S in Handbook]을 바탕으로 DEI 실천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 ESG 사회적책임(S) 분야의 여러 질문들과 ‘다양성(D)·형평성(E)·포용성(I)’ 개념

ESG의 사회적책임(S) 분야에서는 주로 근로자고용(연소자/외국인/단기계약/일용직/학생/아동/강제노동/연장근로), 차별금지내용, 노동조합, 생활임금, 비인도적행위, 동일임금, 성평등, 기타근로조건, 고충처리방법, 우리사주제도, 성과목표기반의 보상체계, 교육훈련프로그램, 협력업체관리, 안전보건 문제 등의 주제들을 다룬다. 이러한 지표들은 늘 담당자들이 다루었던 내용으로 어려운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 하나 하나가 기업경영에 등장하게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ESG경영이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 본다.

먼저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ESG 담당자들은 DEI라는 용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사전적 풀이는 아래와 같다.

- 다양성(Diversity) : 인종, 성별, 연령, 성 정체성, 사회 경제적 배경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인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차이를 포괄
- 형평성(Equity) :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
- 포용성(Inclusion) :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관행. 존중, 환대라는 감정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 ESG 담당자가 알아야 할 ‘Social 생태계의 역사적 흐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밀턴 프리드먼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교과서적인 원칙으로 여겨져 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도 주주 자본주의라는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9년 미국의 BRT(Business Round Table)에서 밝힌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서’와 2020년 다보스포럼의 ‘다보스 매니페스토 II’에서 ‘주주 자본주의를 탈피해 근로자와 함께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자는 주장으로 자본주의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보편적 인권에서 인권경영의 시대로 : 1950년대만 해도 ‘기업과 인권’의 개념은 없었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 개념이 주를 이뤘는데, 1960-70년대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개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대두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부각되었고, 인권 측면에서도 다국적 기업을 규율하는 국제 인권규범 및 인권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그 출발점이다.

UN이 2000년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를 제정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노동·환경·반부패의 4가지 영역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고, 2011년 ‘유엔 기업과 이행지침 (UNGPs)’에서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의 인권정책선언과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를 권고하고 있는 바 오늘날 인권경영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인정받고 있다.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결과적으로 UN, ILO, OECD, EU, 세계은행 등 국가 간 기구뿐 아니라, ISO, GRI,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이행지침」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SG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글로벌 주요 가이드라인

담당자들이 ESG Social 분야의 주요 가이드라인의 등장 배경을 이해 할 때, ESG 평가 실사에 등장하는 차별금지, 생활임금, 성평등, 이직률 관리 등 쉬우면서도 늘 다루었던 문제들이 왜 ESG 실사라는 이름으로 현안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인권선언(1948)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명시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했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 등으로 구분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The infographic features the United Nations logo at the top center. Below it, the title "세계인권선언의 날" (International Day of Human Rights) is written in white on a blue background. The main text, also in white, describes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its commemoration as an international day since 1950. A small reference note "(참고: 위키피디아)" is at the bottom.

**세계인권선언의 날**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선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인권선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참고: 위키피디아)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사회적 규약 또는 A 규약이라고도 한다. 세계인권선언 보다 종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할 권리,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알려진 자유권 규약을 동시에 비준했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1976) :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행동 규범이며,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뇌물공여/청탁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조세 등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보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의 항목을 다룬다.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 4)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1997년) : 조직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으로 고용, 노사관계, 안전보건, 근로교육, 차별금지, 아동/강제노동, 원주민 권리, 인권평가, 지역사회 참여, 공급망 사회 영향, 소비자 안전 및 보건 등을 보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이다. 보고 대상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된 표준이다.
-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년) : 경제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근로자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노동권에 관한 것이고,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인정, 강제 노동 철폐, 아동 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 차별의 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 6)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GC)(2000년)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가지 범주 아래 기업이 지켜야 할 10가지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의 기본원칙과 개발에 관한 ILO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UN반부패협약(2003) 에서 유래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 Human Rights · 인권

####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Busines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게 적극 노력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 Labour · 노동

####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배제,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 철폐,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 철폐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 Environment · 환경

###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 Anti-corruption · 반부패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 출처 : 한국거래소

- 7) 사회책임투자(UN-PRI) 원칙(2006년) :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고자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0여 개 금융기관장들과 출범시켰고, 투자 및 운용 원칙에 있어 6개의 투자 원칙과 33개의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투자 의사 결정시 ESG 이슈 반영, 투자 대상기업의 ESG 이슈 정보공개 요구, PRI의 충실한 이행으로 구분된다.



- 8) I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표준에 대한 국제표준이며, 글로벌 빈곤과 불평등,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위기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면서, 2004년 ISO에서 표준 개발이 결정되었고,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소비자, 정부, 기업, 노동, NGO 및 기타 등 6대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방식으로 참여한 90여 개국 이상의 전문가가 이를 개발했다. 강제성이 없는 실행 가이드라인으로 인증을 위한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관과 기업은 적용에 있어 제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



9)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GPs)(2011년) : 유엔인권이사회가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로 임명받은 존 러기(John Ruggie)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주도하에 준비되었으며,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시민 사회, 노동계,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호· 존중·구제라는 정책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기업은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며, 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실사(Due Diligence)란 1)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identify)하고(인권영향평가), 2) 발견된 내용을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통합(integrate)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3)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줄었는지 검증(verify)하고, 4) 대외적으로 소통(communicate)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0) 국제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2013년) : 재무적인 활동과 성과에 치중한 기존 사업보고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환경 등 비재무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성장이 국제통합보고(IR) 이니셔티브 출범의 발판이 되어 2013년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가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고,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통합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1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2015년) :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새로운 의제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약속이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에서 비롯됐으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결론

위에서 소개된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을 때, ESG 담당자들이 최근의 글로벌 및 국내의 Social 이슈 동향을 이해할 수 있고, S의 핵심지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급여규정, 취업규칙, 윤리헌장/윤리규정, 인권헌장/인권규정, 안전보건방침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E

### 환경



**포장재 구매는 '친환경과 비용 절감 사이 균형이 핵심' [성공 기업의 구매 노트]**

환경비즈니스 | 2024.07.16.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7105293b>

**"재생에너지 효율성 확보 위해 충분한 공급 물량 필요"**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4.07.16.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25>

**'기후위기' 전 세계의 노력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파이낸셜투데이 | 2024.07.18.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39>

**자동차환경협회 등 3개 기관, 전기차 충전기 재활용 협력**

전기신문 | 2024.07.24.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674>

**"ESG경영에 딱 맞는 '구리' 친환경 가치 더 부각될 것"**

헤럴드경제 | 2024.07.26.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26050286>

**소비자는 재활용 순환경제에 관심...유통업계는 '에코 서클' 구축에 열심**

반론보도닷컴 | 2024.08.05.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1>

**"폭염야 물러가라"...유통가, 혹서기에도 ESG 활동 지속**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4.08.08.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12>

**금융권, ESG 경영 박차...생물다양성 위한 환경보호 활동**

비욘드포스트 | 2024.08.12.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81216014679768cba63abf8\\_30](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81216014679768cba63abf8_30)

**경제계, 전력수요 비상에 에너지 절약 뜻 모은다**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4.08.12.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86>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책임...기업들 팔 걷었다**

한국경제 | 2024.07.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295521>

**'ESG평가보상' 있는 기업은 단 10%... "적극 도입해야" [250대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한스경제 | 2024.07.23.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026>

**지구 지키기-협력사 돕기...대기업 사회공헌 지출 '화수분'**

매일경제 | 2024.07.23.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1074744>

**국내 기업, 파리올림픽 지원 행보 눈길...브랜드 이미지 강화 주력**

그린포스트코리아 | 2024.07.26.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28>

**10명 중 9명, 갑질기업 식품 안 산다...힘연는 ESG 경영**

아시아경제 | 2024.08.04.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0216045689648>

**"퇴근 후 연락 말아야"...22대 국회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정될까**

서울경제 | 2024.07.31.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YE323L4>

**근로자 10명 중 7명 '조직문화' 때문에 회사 떠나**

메가경제 | 2024.08.09. <https://www.megaeconom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8704471851>

**"ESG 공시, 과도한 법적 책임 우려... 기업 면책 규정 뒤야"**

세계일보 | 2024.07.1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16516005?OutUrl=naver>

**"ESG 등급은 결과일 뿐...경영혁신 기회로 삼아야"**

환경ESG | 2024.07.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2183831>

**韓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ESG공시 필수...밸류업과 연계해야**

이데일리 | 2024.08.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84886638989288&mediaCodeNo=257&OutLnkChk=Y>

**"기후공시, 오히려 인센티브 기회" 의무 공시·스코프3 적용 '한 목소리'**

서울경제 | 2024.07.26.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W1U8FLB>

**주주 권익 보호하는 '진짜 밸류업' 상법 추진된다**

파이낸셜투데이 | 2024.08.14.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88>

**기업별 들쭉날쭉한 공시 데이터 질, ESG 개선된 기업은?**

더나은미래 | 2024.08.13.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96547>

## S

### 사회



## G

### 지배구조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23.12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78	279	280	278	279	289	290	283
사회적채권	1,463	1,474	1,502	1,531	1,526	1,554	1,577	1,609
지속가능채권	290	285	275	268	254	238	237	230

###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분	'23.12	'24.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녹색채권	256	255	266	262	259	264	264	264
사회적채권	1,994	1,999	2,023	2,054	2,044	2,079	2,102	2,121
지속가능채권	203	199	186	184	177	171	171	167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7.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188

###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7.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528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6)

\* CF100 참여 기업 수: 159개 ('24.7)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8월	<b>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b>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최종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